

위한 삼일절

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삼일절 대회를 위한 **대국본** 앱 천만회원 모집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대국본”치면 앱 다운 가능.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정말 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터질 일이다. 남북 통일정부 구상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스탈린이고 그 하수인인 모택동과 김일성이다. 소련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자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그렇다면 유엔 감시하에 총선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승만은 UN과 미국의 협조를 받아 1948년 5월 10일 선거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먼저 총선을 시행하여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렇게 건국된 대한민국을 유엔총회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까지 했다. 유엔 주관하에 탄생했고, 유엔이 승인까지 한 소중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이다. 국제법에 의거하여 유엔이 탄생시킨 소중한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이 침략한 것은 유엔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된다. 유엔은 6.25 남침이 벌어지자 유엔군을 파병하여 무력으로 공산 침략자들을 격퇴한 이 유는 한국이 유엔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땅을 공산화하기 위해,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 시월폭동, 제주 4.3폭동, 여수반란사건을 일으켰으나 그들은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나라는 음습한 전체주의 파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늘이 한 개인에게 준 천부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 공화국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이라는 혼돈된 이념에 빠져있던 상해 김구 세력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발버둥친 박헌영의 공산주의자들과, 한민당의 대표인 김성수 세력과, 좌우합작을 주장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제압하고 건국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이다.

그 위대한 틀 위에서 4.19와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와 새마을운동을 거쳐 전쟁으로 폐허된 대한민국을 재건하여 민주화의 기틀을 다졌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UN의 결의와 온 민족의 염원을 무시하고 1948년 8월 25일 흑백함 선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들의 기둥은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통제경제, 셋째 소련-중공과의 동맹, 넷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주체조선 김씨 왕조다.

대한민국이 근대화 된 자유민주 공화국의 탄생이라면 북한은 3대째 왕위를 세습하고 있는 김씨 조선 왕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명천지에 왕조라는 이름이 창피하니까 ‘백두혈통’이라는 황당무계한 씨족사회 용어를 동원한 것이다. 양반의 자리에 노동당이 들어앉아 당 간부들이 조선의 양반처럼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착취경제가 북한의 참모습이다. 요즘 북한에는 당이 두 개라고 한다. 노동당과 장마당 두 정당이 권력투쟁을 벌여 장마당이 노동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우스개소리도 들린다.

공작과 모사를 통한 공산화 작전이 실패하자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18만 명 병력과 T-34 전차 242대, 자주포 142대, 10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앞세워 전면 남침했다. 6.25 전쟁은 500여만 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했다. 6.25 남침 때 최일선에 서서 인민군을 이끌었던 장교의 80퍼센트, 그리고 18만 명 인민군 중 6만 명이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보낸 조선족 병력이었다. 6.25는 명백한 김일성 모택동 합작의 남침 전쟁이었다.

김일성 집단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통제경제, 소련-중공과의 공산동맹을 선택했으나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패륜국가,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전락했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대한민국의 승리로 압도적인 결말이 났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음습한 구석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세력이 민주화로 가장하고 권력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날마다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외치던 주사파 일당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남로당 잔당들이 연합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자유동맹을 해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공산동맹을 시도하고 있으며 마침내 청와대까지 점령하여 마지막 행동을 하려 하고 있다.

◆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문재인대통령이 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종북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6.25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고,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외친다. 해방 후 박헌영과 남로당의 목표였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등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종북좌파 사상을 가진 대학교수와 전교조 및 학생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은 미군을 철수하고 미국 없이 살아야 진정한 자주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해방 후 78%의 국민들이 박헌영과 남로당에 속았던 때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상처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국가 1년 예산에 달하는 400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켜 선진국과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여 국가와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마침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정예 사단들을 해체하고, 해안을 지키는 부대가 계속 경계망이 뚫려도 누구 하나 자성의 모습조차 없는 군대 모습을 보라. 월남 패망 때의 월남군과 완벽한 닮은 꼴 아닌가.

대한민국은 1970년 국민들의 투표로 공산화 된 칠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아옌데가 했던 수법 그대로 대한민국 공산화가 추진되고 있다. 전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냄비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냄비를 두드리며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쳤다. 국민이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70여년 대한민국 역사로 입증된 것을 거울삼아 더 이상 한국 현대사의 거짓는 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박헌영과 남로당의 후예를 자처하는 주사파들은 스스로의 과오를 역사 앞에 시인하고 참회해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된 일 등국가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만일 주사파 일당들이 스스로의 잘못된 주사파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 속에 숨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며 주사파 운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과 세계 속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속히 끌어내려 그 동안의 죄과를 물어 감옥에 잡아넣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헌법과 건국 4대기둥(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로세워야 한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한 순간 진통이 있을 수 있으며, 격정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코 한 뜻과 한마음으로 뭉쳐 이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 소득 5만불, 자유통일조국, 복지국가, 세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시다.